전주매일

▶▶ 매일 INDEX

12면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본격화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음 9월 27일) 제28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민체감 지방분권 필요”

송하진 도지사,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 발표

“중앙 · 지방정부, 협력적 파트너십 발휘 중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정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하며, 중앙은 이를 지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의 공동요구문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달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50여명의 정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북도, 정부 방침 따라 오늘부터 본격 시행

중증 · 사망자 발생 억제 접종률 제고 등 주력

시 · 군 책임 기반 대응체계 마련 방역 역량 강화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전면 적용한다.

도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기초단위 읍면동의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 방역을 지속 시행하고, 동참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해 도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최근 남원 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접종완료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는지,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이 의무적으로 주1회 PCR검사를 시행하는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하는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는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 적정 여부 확인, 증상 악화 시 빈틈없는 환자 이송체계 구축, 병상 배정과 돌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을 키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와 함께,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도민 한분 한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한다면, 기대가 현실이 되고, 새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2024년 말까지

현업축사 매입 ·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오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 117만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 예정이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9,000㎡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으로 익산천 수질이 지난 2010년 대비 98% 개선되고, 악취 또한 2012년 대비 84% 저감 된 사례와 같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3천두)가 줄어들어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톤)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톤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감안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국회의원, 김제시 등과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해 온 끝에 국가사업 반영을 관철시켰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익산 왕궁 사례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과, 현업축사 매입을 국비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도는 환경부 요구에 맞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부각,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진 시기 협의 등 발 빠르게 논리를 개발했다.

이후, 도는 지휘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 단계별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르게 돼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혼연일체로 이뤄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정치권과 김제시의 전략적 공조로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 - 가 - 463호 (유효기간 : 2021. 11. 30 까지)
전북은행
축! 전주매일 창간
최고 연
(2021. 09. 29. 현재, 24개월 가입기준, 세전)
더모아(MORE) 정기예금 특판
1.60%
기간 : 2021. 9. 29(수) ~ 2021. 11. 30(화) *한도소진 시 조기종료
고시금리 + 기본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 해지 시에 일시 지급합니다.